

30년전 우리는② : 1974년 2월



“도서관사적으로 볼때 공공도서관은 그 나라 도서관의 상징이다. 공공도서관이 저조할 때 다른 유형의 도서관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기형이다”

지난 1월호에 1974년 1월을 중심으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에 대해 몇 몇 분들이 재미있었다는 의견을 전해 주셨다. 앞으로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나 지향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의미와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1974년 2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4년도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관보)을 빌어다 보았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 달에 짚어보지 못한 것을 일부 포함해서 이제 1974년 2월로 여행을 떠나본다. ■ 편집자 주,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etel.net]

우선 이 글을 쓰면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협회 기관지 《도협월보》와 국립중앙도서관 관보인 《도서관》의 1974년 2월호를 보면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우선 《도협월보》는 특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루고 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운동과 도서관협회’를 특집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절묘한 조화라고나 할까.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실장이던 장일세 선생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김세익 교수는 양 쪽 모두에 글을 쓰고 있어 왕성한 활동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두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생생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우선 1974년 2월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고민한 이유는 12월에 남산으로 이전하기 전,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은 어디에 위치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정필모 교수의 글을 보면 당시 정부당국은 소공동(현재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 이전을 놓고 이전후보지로 여의도나 남산을 생각했던 것 같다. 정필모 교수는 그러한 정부당국의 태도에 대해 도서관 전문가들이 우울해 하고 있는 정황을 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여의도나 남산의 불가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신 새로운 후보지를 개인적으로 제안하였다. 혹시 어디를 제안했는지 아시는가? 적합한 후보지의 조건으로 수도의 중심지, 교통 편리, 각 중앙 행정관서와 인접, 쾌적한 주변환경, 넓은 대지면적 등 5가지를 제시했는데 정필모 교수는 ‘종묘’를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로 추천하였

다. 종묘 안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상상할 만한가? 상상만 해도 즐겁다. 다음 후보지로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캠퍼스 부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해 12월 남산으로 이전한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도서관협회의 역할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글들이 실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장일세 선생의 ‘도서관운동과 도서관협회’란 글에서 많은 시사점과 함께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배 사서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특집으로 실린 3편의 글 모두에서 제시된 도서관협회나 도서관계에 대한 지적과 제안이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결코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선배 도서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한다. “도서관사적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은 그 나라 도서관의 상징이다. 공공도서관이 저조할 때 다른 유형의 도서관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기형이다.”(김세익)

도서관협회는 1월 30일 지구협의회회장 및 부회장 간사회회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안건은 지구협의회 및 부회 조직 정비와 당면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이었다. 지구협의회와 부회(현재는 관중별 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의 활성화가 주된 관심사였는데, 그를 위해 회의에서는 본협회와 지구협의회 및 부회와의 업무적인 유대강화가 필요하다, 회원들과의 친밀감 유지·발전, 배부함 자료의 신속한 배부(이 배부함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당시로서는 이 사업이 협회의 주요한 사업이었다고 한다)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발전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중에는 사서교사 정원의 배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사서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서교사 주임 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점, 교장 및 교감 세미나를 통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도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도 어찌 지금 상황과 거의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우리 협회는 2월 13일 지구별 및 관중별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아마도 30년 전의 필요성과 의미와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도서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30년 전의 주장이 새삼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잠깐 질문 한 가지. 당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구별 협의회는 몇 개였을까? 지금은 몇 개일까? (정답은 이 글 맨 끝에서 확인 바람)

1974년 2월에 4개 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학위수여식을 가지고 사서를 배출하였다. 몇 명쯤이 배출되었을까. 4개 대학에서 모두 121명이 졸업했다고 한다. 연대 25명, 성대 35명, 이대 50명, 중앙대 11명. 그리고 추가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도 모두 63명의 정사서 및 사서교사를 배출했다고 한다. 《도서관》소식에 의하면 1974년에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40명 정원으로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서관계에서는 국립대학에 계속 학과가 설치될 것을 기대하여 환영한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현재와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도서관 현장의 발전 속도와 사서의 배출 속도나 양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문제가 우리 도서관계의 가장 아프고 절실한 문제로 근·현대 역사 내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니, 이를 어찌 풀어야 할지 여전히 풀기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이 2월 22일 신축되었다는 기사도 볼 수 있다. 설계는 미국에 있는 건축회사가 기증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 도서관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중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완전 개가식 열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고질문제도와 독자를 위한 봉사제도를 이용하도록 발전시키는 계획과 시청각교육계획 등 몇가지 기본 운영방침을 세우고 자료, 이용자, 사서의 삼위일체의 대학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학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상당수가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으로 발전한 현재에도 30년 전 당시 개가제 도서관으로서의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 이용자, 사서의 삼위일체의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새삼스럽다.

학교도서관 분야에서는 교육감의 학교도서관(국민학교, 현재는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표창이 처음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남교육위원회가 도내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지도실적 우수학교와 교사에 대한 교육감표창을 실시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7개교와 교사 5명, 학생 26명이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1975년에도 시상했을까 궁금하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호에 게재할 생각이다). 이에 앞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인 국립중앙도서관 주관하의 독서교실에 대한 시상식이 2월 21일에 있었다. 당시 문교부장관실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승을 차지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고 한다. 1973년에는 겨울에 독서교실을 진행하였는데, 1974년부터는 여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럼 그 해 여름 독서교실은 열렸을까? 8월에 전국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열렸다.

이제 두 번째 글을 마치면서 여전히 우리 도서관계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지 아직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전 강력한 도서관 운동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사서직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의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마치기 전에 30년 전과 지금의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지구별 협의회의를 수를 알아본다. 30년 전인 1974년에는 전북지구협의회, 충남지구협의회, 경북지구협의회, 부산지구협의회, 전남지구협의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북이나 충남지구협의회는 활동이 없고,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부산지구협의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생각은 개별 도서관이나 도서관인의 몫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30년간의 변화는 도서관운동과 그를 추진하는 조직체로서의 협회나 협의회 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또 다시 1974년 3월의 일을 찾아 나서기 위해 이번 글을 마친다.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사실과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